

**Ko**

Admin

2017/07/13 17:13

# Table of Contents

사실 학문적으로 고유어를 엄밀하게 정의하긴 어려운데, 이른 시기 문헌자료의 부재로 아직 한국어의 계통과 성립 과정을 뚜렷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유사 이래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 확실한 한자어와, 외국어에서 유래한 외래어를 뺀 나머지 말을 고유어로 보면 대략 무방하다.

일부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순우리말이라고 생각하는 말들 가운데 유사 이전 또는 고대에 중국어에서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낱말이 있기도 하다. 그 중에 좋은 예가 바람으로, 바람(風)은 바람 풍(風)의 옛 발음인 *prəm*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설이 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학자에 따르면 태국어에도 바람의 뜻으로 자음의 배열이 비슷한 낱말이 (*p r m*)있기 때문에 중국어 또한 남방으로부터의 차용이거나 또는 개별 국가나 민족이 생겨나기 이전의 어떤 종족집단이 지나가면서 남긴 자취일 수도 있다.

또한 강(江)의 우리말인 가람의 옛 발음 *kaɾam*이 한자 강(江)의 상고재구음과 유관하다든가, 마을의 옛 발음 *maɾi*리(里)의 상고재구음 *mljəg*의 차용이라든가 하는 주장을 펴는 학자들이 있으나 정설은 아니다.

가람에 대해서는 중세에 *kaɾam* 외에 *kaɾɿ*이란 어형이 확인되며, 동족어휘로 생각되는 개울이란 낱말도 있다. 주로 중국의 조선족 학자들, 김용옥의 부인인 중국어학자 최영애나 한양대학교 수석임용박사 중국어학자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한자의 상고재구음 자체가 일종의 가설로서 유추해낸 것이다. 학자들마다 설정하는 재구음이 다르고 앞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도 아니다. 차용관계가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유사이전 시대의 언어흐름에 대해서는 추정 이상의 것을 말할 수 없다. 이들의 주장대로 옛 중국어의 차용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한국어의 조어(祖語)가 속할지 모르는 알타이어가 중국어에 미친 영향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주로 접촉했던 만주나 요동지역은 알타이어계통의 언어를 쓰던 종족이 다스리던 땅이다.) 또한 중국은 역사적으로 줄곧 이민족을 흡수하면서 영역을 확장해나간 나라이기 때문에 본디 중국어에 속하지 않았던 언어의 흔적이 중국어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한국어에 들어왔을 수도 있다.